SEOUL
NATIONAL
UNIVERSITY

Warm hearts & Cool heads

ECONOMICS NEWSLETTER 제48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김봉근 / 편집인 : 이지홍 / 편집조교 : 문주호 / 발행일 : 2024년 4월

16동 리모델링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증개축공사 기공식

3월 25일 사회과학대학 16동 리모델링과 한국경제혁신센터 증개축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행사가 사회과학대학 16동 공사부지에서 개최되었다.

노후화된 16동 건물의 리모델링, 사회대 도서관의 개축 및 한국경제혁신센터의 증축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열린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을 비롯하여 정운찬 전 국무총리, 권오규 전 부총리 등 100여 명의 학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김대일 사회과학대학 학장의 진행 경과보고,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과 외빈의 축사, 시삽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경제혁신센터 조감도

한국경제혁신센터는 당초 우석경제관(223동)과 함께 위치하여 경제학부 구성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터전으로 자리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회의와 구성원 투표를 통하여 사회대 도서관에 새롭게 위치를 정하였다. 기존에 사용했던 사회과학대학 16동 건물은 1995년에 완공되었고, 30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된 탓에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6동 리모델링과 한국경제혁신센터 신축 사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학부와 사회대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경제학부는 현재 30위권인 QS 세계대학 평가를 향후 10위권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21세기 세계 최고의 학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학부의 비전 “DIRECT 21”을 실천하고자 한다.

한국경제혁신센터 기공식 축사

경제학부의 미래를 위해 응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들과 구성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경제혁신센터가 드디어 역사적인 첫 삽을 뜨며 그 시작을 알렸다. 2027년 예정대로 완공이 된다면 한국경제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경제학부와 한국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 해답을 던질 것으로 기대한다.

INDEX

①16동 리모델링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증개축공사 기공식 ②교수 수상 및 동정 ③논문소식/교수 신간 ④신임교수 인사말
⑤Abhijit Banerjee 노벨상 수상자 특별 강연 ⑥재학생 기고글 ⑧동아리 소개 ⑨BK 21- Four 사업단 소식 ⑪경제학부 단신/동문 소식

교수 수상 및 동정

이근 교수, EBES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

이근 교수가 2023년 7월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EBES (Eurasia Business & Economics Association) 총회에서 2023년도 EBES fellow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석학회원 제도는 그 동안의 학문적 업적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되는 것으로 이전의 fellow로는 거시금융분야의 Barry Eichengreen (UC Berkeley) 및 계량경제학의 대가 M.Hashem Pesaran (Cambridge U.)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장용성 교수, Econometric Society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

장용성 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가 28명의 경제학자와 함께 Econometric Society의 신임 석학회원(fellow)로 선출됐다. Econometric Society는 1930년 발족된 유서 깊은 경제학회로 경제이론분야 혹은 경제이론 연구에 기초가 되는 수학 혹은 통계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학술업적을 쌓은 경제학자들이 석학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장용성 교수는 이질적 경제주체로 이루어진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미시적 노동과 거시적 노동 공급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국내 대학 소속 중 석학회원으로 선출된 것은 지난 2010년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정민 교수,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

이정민 교수가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정민 교수는 〈경제원론1〉, 〈노동경제학〉을 지속적으로 강의하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내용과 형식을 꾸준히 개선해 좋은 강의평가를 받고 있다. 대형강의의 단점 극복을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학부생 TA제도, 핵심개념 영상 촬영 등 실험적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학부생 동료 조교를 활용한 peer-to-peer learning을 시도하여 친절하고 명쾌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일 교수, 사회과학대학 학장 겸보

김대일 교수가 2024년 1월부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겸보한다. 김대일 교수는 2018년에 경제학부 학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교수 정년퇴임

김선구 교수, 정년 퇴임

경제학부에서 지난 30년간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 왔던 김선구 교수가 2024년 2월 정년 퇴임한다. 김선구 교수는 1991년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0년 9월에 서울대 경제학부로 부임하였다. 김선구 교수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미시경제학>, <계약경제학>, <정보경제학> 등을 강의했다.

신임교수 부임

최재원 교수, 경제학부 부임

최재원 교수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하였다. 최재원 교수는 재무경제학 전공으로 2010년에 뉴욕대학교 스턴스쿨에서 재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최재원 교수는 2024학년도 1학기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1:이론> 과목을 강의한다.

논문소식

김진우 교수, 학술지 Econometrica에 논문 게재

김진우 교수가 세계최고의 경제학 학술지 중 하나인 Econometrica에 논문 “Near” weighted utilitarian characterizations of Pareto optima를 게재하였다. 파레토 효율성과 공리주의 효율성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효율성 개념으로서 이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였는데 본 연구는 파레토 효율성을 “근사 공리주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특성화함으로써 이 숙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형태의 근사 공리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형태인 “순차적인 공리주의”는 다단계에 걸쳐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각 단계에서는 일부 경제주체로 이루어진 집합을 고려하여 이들 효용의 가중합을 극대화하며, 단계를 거치며 이 집합은 점점 커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집합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근사 공리주의는 초실수(hyperreal)를 가중치로 가질 수 있는 공리주의 후생함수를 고려한다. 즉, 어떤 경제주체는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무한극소”의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순차적인 공리주의와 연결 짓자면, 공리주의 후생함수의 다단계 극대화 문제에서 다른 이들보다 나중의 단계에서 고려되는 경제주체들이 바로 이러한 무한극소 가중치를 받는 경제주체에 해당한다. 이 연구 결과는 매우 불평등한 결과를 배제하지 않는 파레토 효율성과 그에 비해 평등한 자원배분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효율성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교수 신간

2024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6명 지음 / 21세기북스
2023 10월 출간

팬데믹 충격 이후 활기찬 봄이 오기를 기대했으나, 2023년엔 더 매서운 경제 한파를 맞았다. 2024년에도 어려운 경제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 34인이 모였다. 복잡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까지 한데 아우르는 책을 만들었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다음 해를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어디인지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사회적 가치 패러다임

주병기 외 12명 지음 / 박영사
2023 10월 출간

이 책은 사회적 가치 연구에 있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학술적 과제로 사회적 가치 세부 분야에 관한 보다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서울대 사회대 13명의 연구자가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한 사회적 가치 연구의 결과물들을 소개한다.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홍주·결성·보령·청양·대흥·오천 편

조영준 외 역해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 11월 출간

이 책은 조선후기 충청도 지역의 행상 조직 중 하나인 '원홍주등육군상무우사'의 현존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원문을 탈초, 정서, 번역, 해설한 전문 서적이다. 알아보기 힘든 초서로 작성된 내용을 읽기 쉬운 활자본으로 재구성하여 다듬었으며, 현대 한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

물명고 역해 (전 13권)

조영준 외 역해 / 도서출판 역락
2023 12월 출간

이 책은 9천 여 사물의 명칭을 분류별로 정리하여 한문 또는 한글로 풀이한 것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상세한 번역과 해설을 담아 원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인과추론

이서정 / 도서출판 해남
2024 1월 출간

이 책에서는 인과효과를 데이터를 통해 올바르게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통계기법 중 도구변수에 대해 설명한다. 이론의 핵심 내용과 인과추론의 최신 연구동향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다룸으로써 추상적인 이론에 실질적 의미를 담으려 하였다.

최재원 신임 교수 인사말

최재원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1999)
- 프린스턴대학교 금융공학 석사 (2004)
- 뉴욕대학교 스턴스쿨 재무학 박사 (2010)
-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조교수 (2009-2010)
-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경영대학 조교수(2010-2017), 부교수(2018-2022), 교수(2023)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2024-현재)

안녕하세요.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한 최재원입니다. 지난 14년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재무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박사학위는 뉴욕대학교 스턴스쿨에서 Finance 전공으로 하였고, 석사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금융공학으로,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 학사를 하였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과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에서 컨설턴트를 하기도 했고요, 학계에 오기전에는 투자은행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20년이 넘은 미국생활을 마무리하고 모교에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 행복하고요.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기저기 추억이 깃든 캠퍼스 출근길이 신이 납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토론과 연구도 재미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오래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제 연구분야는 재무경제학입니다. 재무경제학에는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자산가격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자산가격결정(asset pricing) 분야. 기업의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조달과 투자결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업재무 (corporate finance). 투자/상업은행 및 자산운용사/사모펀드 그리고 보험사/연기금 운용사들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서의 역할을 연구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 가계의 소매금융 및 금융결정에 대한 분야인 Household finance. 이 외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매크로 파이낸스 (macro-finance) 그리고 핀테크, 인공지능/머신러닝, 빅데이터, 가상자산등의 분야들도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들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큰 범주로 볼 때에 자산가격결정과 금융기관에 가깝지만, 구체적 연구주제들은 위에 언급한 분야들에 두루 걸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출판된 리칭포 일드(Reaching for yield in bond funds)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증가와 채권 시장의 가격 왜곡이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의 연구 주제인 기관투자수요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Investor demand and capital misallocation)이라는 논문에서는 기관들의 비이성적 투자수요가 상장기업의 투자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이들 연구는 자산가격결정, 금융기관, 기업재무 및 매크로 파이낸스등에 여러 분야에 두루 속하는 주제입니다.

최근의 관심 연구 주제는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과 국제 포트폴리오흐름(international portfolio flow)입니다. 2010년 이후로 자본시장에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에 따른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전통적 금융기관들과 비전통적 기관들(그림자 은행 shadow bank라고 합니다)에 보이지 않는 금융안정성의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들의 뱅크런 혹은 PF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일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각국의 금융시장이 서로 동기화 되는 현상 또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경영학과 교수에서 한국 경제학과 교수가 되니 많은 것들이 새롭습니다. 강의방식 그리고 연구 학풍 등 제가 신선한 관점으로 학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배워야할 점들이 많습니다.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bhijit Banerjee 노벨상 수상자 특별 강연

Abhijit Banerjee 노벨상 수상자
(사진 출처: nobelprize.org)

2023년 12월 22일 우석경제관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Abhijit Banerjee MIT 교수의 <Humanizing Network Economics>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Abhijit Banerjee 교수는 세계의 빈곤 문제의 해결에 관해 미시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을 적용하여 이뤄낸 성취를 인정받아 Esther Duflo, Michael Kremer와 함께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실험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한 의의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강의 전반부에 세 가지 질문들 - 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② 네트워크는 의도적으로 혹은 무작위로 연결되는가? ③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짜임을 고려하는가? -을 던지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정책 입안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사회 공동체에 전파하기 위해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가?'에 대해 카르나타카 주에서의 사회 실험을 소개했다. 이 실험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장 많이 지명된 사람(gossip; 소문 퍼뜨리는 사람)에게 복권 무료 추첨과 관련된 최초의 정보가 알려졌을 때 정보가 가장 널리 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도 면역 캠프와 관련된 정보가 gossip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널리 퍼졌다. 이 실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gossip들은 네트워크의 적절한 자리에 있어서 gossip이 된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를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네트워크의 중심을 구성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질문인 네트워크 구성의 무작위성 대 의도성에 대해 한 마을에 소액금융을 제공하는 실험을 소개했다. 마을에 소액금융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마을의 네트워크는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네트워크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잘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부의 결정이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인 사람들이 선택의 이면에 있는 네트워크의 짜임을 정교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동일한 출처에서 여러개 전해지더라도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무시하여 각각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트워크의 짜임을 정교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염모델을 포함했을 경우 사람들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사람들은 항상 정보가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교하게 네트워크 짜임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경제학은 사람이 결국 종종 영리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Banerjee 교수의 이번 강연을 듣기 위해 수많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다. 강연을 통해 학생들은 빈곤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Banerjee 교수가 실행했던 여러 실험과 그곳에서 겪었던 그의 경험 및 고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재학생 기고글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된 2년간의 학부 생활

김진성 (학부 22학번)

지난 2022년 경제학부에 입학한 이후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있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생이 그러듯이 밤을 새우며 시험 준비도 해 보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동아리에 시간을 쏟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점은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입대를 앞둔 지금, 제가 보내온 시간을 스스로 돌아보고 저의 생각을 모두와 나누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야기하고 싶은 분야는 학업입니다. 사실 저는 학업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경제학을 열심히 배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나름의 큰 뜻을 가지고 학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시험 성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격차, 자연스레 느낄 수 있는 주변 친구들과 저 사이의 학업에 대한 열정의 차이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했던 탓인지 남들은 쉽게 쉽게 해내는 작은 분야부터 저에게는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남들만큼 나오지 않아 좌절하고, 그로 인해 학업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경제원론 강의를 재수강하던 중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당시 담당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메일도 보내보았습니다. 답변 내용 중 공부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부를 되돌아보니 고등학교 시절의 '답안 도출만을 위한 암기식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을 고쳐먹고 성적이 좀 나오지 않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가 생각하여 답변을 도출하는 공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원리를 바탕으로 사고하기 시작했고 조금 느리지만 점점 성장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하는 시간은 그 시기의 문제일 뿐, 서울대에 입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 조급함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학부 2년 다녀놓고 거창한 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공부를 하며 학부 생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분야는 동아리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학업과는 달리, 동아리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값진 경험을 하였고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사회대 야구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한 지금도 리그 경기가 있는 주말에는 본가에서 서울까지 4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야구를 하러 올라갈 정도의 열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에는 감독 겸 주장을 맡아 팀의 종합체육대회 우승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모두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자신을 좀 더 희생하고자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속에서 크나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우분들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험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게 남들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야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을 하며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당일 예매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놀러 가고, 안양 어딘가에서 기숙사까지 4시간 반을 밤중에 걸어오고, 즉흥적 계획으로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만 딱 올라간 경험들 –을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남 시선은 신경쓰지 않고 가능한 한 하고자 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서울대씩이나 나와서 그런 일을 하냐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직업일지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좋아하는 야구와 관련된 일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진로입니다. 이를 위해 군복무를 하며 미래 계획을 세워보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친 뒤 다시금 학업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대학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금융·경제 연구세미나
SFERS

글 박기량 (SFERS 회장, 경제학부 21학번)

1. 동아리 소개

SFERS(SNU Financial & Economic Research Seminar)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속 금융·경제 학술 동아리로, 2000년 11월 16일 설립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학 이론에 대한 이해 및 탐구를 바탕으로 현실 경제의 여러 시사 현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SFERS가 목표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원들 간의 학술 교류를 통해 금융 및 경제 지식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전문가적 자질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즉, 우수한 경제적 사고 능력과 능동적 탐구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활동을 통한 활동회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커리어 멘토링 및 홈커밍데이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간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경제학 이론에 대한 이해 및 탐구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좋은 연구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회원들은 학술적 측면과 인격적 측면 모두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SFERS는 경제학부뿐만 아니라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자유전공학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 소속의 회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에서 채택하는 다양한 시각 및 접근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토의함으로써 연구의 융합적 성질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습니다. 금융·경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찾아내고, 자발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하며 각자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성은 비단 동아리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모전과 경시대회 참여, 여러 분야의 그룹 스터디 운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FERS의 지도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황윤재 교수님으로, 2007년 가을학기부터 지도를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SFERS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십니다.

2. 동아리 활동 소개

■정기 세미나

SFERS의 한 학기 활동은 관심 주제가 비슷한 5~6명의 회원들끼리 팀을 결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진행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것을 주축으로 합니다. 학기당 두 번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는 SFERS의 가장 큰 행사로, 회원들이 다른 팀의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연구에 사용된 경제학적 직관과 분석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기 세미나를 통해 모든 회원은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연구의 다양한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과 사후 리뷰 세션을 진행하여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구를 한층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커리어 멘토링, 선배들과의 만남 및 홈커밍데이

SFERS의 졸업회원들은 대학원 진학 및 유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정부기관, 금융공기업 및 사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SFERS는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매 학기 진행되는 커리어멘토링은 탐색 중인 진로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졸업회원과 소규모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매년 진행되는 홈커밍데이는 활동회원과 졸업회원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자리로 작용하여 SFERS의 인연이 동아리 이수 이후에도 지속되게 해줍니다.

■대외 세미나

SFERS는 정기 세미나 외에도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여러 국내외 대학들과 연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참여하는 4개대학세미나가 진행되고, 가을학기 중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경대학,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히토쓰바시대학이 참여하는 한일연합세미나에 서울대학교 대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겨울방학에는 동경대학의 Aoki 세미나와 연합세미나를 개최하여 보다 긴밀한 학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은 새로운 학문적 자극을 얻는 동시에 다른 학교의 참가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친목 도모 활동

SFERS는 신입회원 모집 직후 LDT(Leadership Development Training)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새로 들어온 신입회원의 원활한 적응을 돕고, 신입회원과 기존 활동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MT를 가거나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함으로써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3. 신입회원 가입 안내

SFERS는 3월과 9월, 매년 두 번에 걸쳐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전공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학부 과정을 3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앞으로 최소 2학기 연속 활동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지원 마감 한 달 전 동아리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선발 과정은 지원서 면접과 PPT 발표로 구성되며, 절대적인 실력보다는 학술적 열의와 학회 활동에 대한 열정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동아리 홈페이지(www.sfers.com)를 참고하시거나 동아리 공식이메일(sfersrecru@naver.com)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BK21 – Four 사업단 소식

본 사업단은 2020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지난 7년간 BK21플러스 사업을 바탕으로 연구, 교육 및 국제 평판도에서 국내 1위를 확고히 했다. 『**한국 경제의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은 "한국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고자 한다. 우리 사업단은 국내 1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기 위해 (1) 교수진의 연구 역량 질적 향상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의 교육 체계 개편 (3) 양방향 국제화 실현 (4) 한국경제 당면 과제 해결 기여라는 4가지 실천 전략을 토대로 **해외 연구중심대학과 국제기구로 진출 가능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2023년도 하반기 학술활동

BK21사업단은 2023년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8회
- BK21/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 4회
- Applied Micro 세미나 9회
- Brown Bag Lunch 세미나 5회
- 소규모 세미나 3회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MICRO)

Joon Song (SKKU)
Non-cooperative Equilibria as Walrasian Models of Exchange

Yuichi Yamamoto (Hitotsubashi University)
Higher-order misspecification and equilibrium stability (with Takeshi Murooka)

Daniel N Hauser (Aalto University)
Behavioral Foundations of Model Misspecification

Yeon-Koo Che (Columbia University)
Making Sense of Data-Driven Prediction Machines: Economic Perspectives on the AI Economy

Matthew Kovach (Purdue University)
Inertial Updating

곽창현 (Academia Sinica)
Screening without single crossing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METRICS)

김동규 (KAIST)
Large Global Volatility Matrix Analysis Based on Observation Structural Information (with Sung Hoon Choi)

Karun Adusumilli (University of Pennsylvania)
Optimal tests following sequential experiments

BK21 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

Job Boerma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Composite Sorting

Rachel Ngai (LSE & Imperial College London)
Structural Transformation over 150 years of Women and Men's Work

Federico Huneeus (Duke University)
Spatial Production Networks

Timo Boppart (Stockholm University)
Good Rents versus Bad Rents: R&D Misallocation and Growth

Applied Micro 세미나

Seung-Hyun Hong (UIUC)
Voting with Your Mortgage: The Value of Democratic Governance (with Lu Han, and John Hatfield)

Jun Sung Kim (SKKU)
Network formation with unobserved homophily: Identification and evidence from Bangladeshi

Heepyhung Cho (Korea University)
Explaining Variation in Quality of Life through Amenities: Evidence from Korean Cities

Alden Cheng (NBER postdoc)
Why Are Minorities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in Low-Quality Nursing Homes?

Songman Kang (Hanyang University)
Home Sharing, Crime, and Public Safety: Evidence from Korea

Minji Ba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Racial and Socio-Economic Gaps in Access and Exposure to Local News

Joshua Merfeld (KDI School)
Air poll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a developing country

Saiah Lee (UNIST)
Central Bank Swap Lines and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in Trade

Ami Ko (Georgetown University)
Dynamic Pricing Regulation and Welfare in Insurance Markets

Brown Bag Lunch 세미나

손세호 (서울대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Association between Cash Transfers and Reduced Suicidal Ideation among Elderly Individuals

김성훈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Effect of Immigrants on Labor Market of Natives

옥윤우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Marriage, Divorce, and Birth After COVID-19

최강우 (서울대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적 지위 변화가 이주 노동자의 임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봉섭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Fighting Child Penalty: Individual Attitudes Toward Family-Friendly Policies

소모임 세미나

Econometrics Game 2024 대비 세미나 3회

23년 2학기

장학금

장학금 수혜 현황

2023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254명, 대학원생 25명이 수혜를 받았다.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177명, 대학원생 17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상대향상 재단을 통해 학부생 33명이 향상장학금을 받았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8회 전기 학위수여

경제학부는 박사 1명, 석사 4명, 학사 131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제78회 전기 학위수여식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2023년도 동계계절학기가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계절학기 개설 희망 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2','한국 경제발전의 이해',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정치경제학입문', , '경제수학', '경제사',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1: 이론'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2023년도 2학기 영어강의 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근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y
Dmitry Shapiro	Economics of Strategy, Advanced Economic Theory (Economics of Information)
이은희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Trade, Labor Market and Firm Productivity)
김석호	Introduction to Economics, Principles of Economics 2

학생수상

경제학부 학부생팀 제8회 학봉상 자유논단 부문 장려상

경제학부 이윤경 학생팀(이윤경(경제), 신지민(경제), 신재욱(건설환경/경제))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제8회 학봉상' 중 자유논단 부문에서 '저출산 실태의 이원론적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논단에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관하여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원인을 탐색하였으며, 다양한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점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이번 참여팀 중 학부생 팀으로는 유일하게 수상을 하여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